

영아 행동유형별 지도를 위한 보육교사 안내서

영아 행동유형별 지도사례



영아

행동유형별

지도사례



I 기본생활영역

1)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08
2)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13
01 공갈 짓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13
02 편식: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5
03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17
04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19
05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21

II 신체운동발달영역

1)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24
2)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27
01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27
02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29
03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	31
04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33
05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35

III 사회성발달영역

1)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38
2)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41
01 무는 경우	41
02 할퀴는 경우	44
03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	46
04 놀잇감을 뺏는 경우	48
05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50

IV 언어발달영역

1)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52
2)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지도의 실제	57
01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57
0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58
02-01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61
03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64
04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 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66
05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68





본 책자는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2013.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현장에 필요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췌하였으며

상호작용 및 지도사례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영아와의 상호작용과 문제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기본생활영역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기본생활영역 지도의 개념과 중요성

기본생활의 개념과 내용

- 기본생활은 영아가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몸에 익히고 지켜야 할 생활 태도를 의미함
- 영아 기본생활 지도는 자신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식사, 배설, 휴식, 청결과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안전, 절제, 질서, 예절 등이 포함됨
- 기본적인 생활의 태도는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습관화되어야 하므로 일관적인 지도가 필요함

영아기 기본생활 지도의 중요성

- 영아기는 발달이나 성숙이 급속하게 진행되며 일상생활의 기본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 영아기에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이후의 신체발달, 지적발달, 인격 형성과 사회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영아기에 형성된 일상생활의 기본습관과 태도는 이후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잘못된 습관은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나쁜 습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본생활습관은 영아기의 중요한 보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잘못 형성된 습관의 수정은 성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어려움이 있는 영아의 경우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요구됨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

- 기본생활습관은 영아기부터 형성되면, 잘못 형성된 습관이 문제 시 되는 것은 주로 유아기부터 해당됨

나. 기본생활 영역의 문제행동 유형별 발달특성

식사

- 영아가 습득해야 하는 식사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습관, 규칙적인 식사습관, 예절 바른 식사습관으로 구분됨
- 영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식사능력이 발달함

<표1-1-1> 연령에 따른 식사능력의 발달

연령	식사능력
0~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나 인공유만 하던 영아가 6개월부터 반유동식도 맛볼 수 있게 되며 일정 시간에 이유식을 먹음 • 8개월 이후부터 고형식을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수저를 이용해 스스로 먹는 연습을 시작함
1~3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져 혼자서도 손가락이나 포크를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음 • 음식을 스스로 먹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만 아직 음식을 먹다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양한 맛을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지지만 맛이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생김
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량이 많아지고 신진대사와 소화흡수기능이 좋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하고 식사량도 늘어남 •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음 • 바르게 앉아서 올바른 태도로 식사에 임할 수 있음
4~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식사재료나 음식에 대한 이해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며,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알게 됨 • 식사도구 사용도 능숙해지고 다양한 맛과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식사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음 • 식사 규칙이나 예절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음

※ 자료: 이순형 회(2013). 아동생활지도. 학지사.

배설

- 영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배설 기능이 발달함

<표1-1-2> 연령에 따른 배설 기능의 발달

연령	배설 기능 발달
0~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광에 소변이 쌓이면 반사적으로 소변을 배설하지만, 소변보는 간격은 점차 1~2시간 정도 길어짐
6~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의 방광은 점차 커져서 어느 정도 소변을 참을 수 있음
10~1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경 및 뇌가 발달하여 방광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음 • 한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임 • 젖은 기저귀나 옷을 가리키거나 만지며 불편함을 표현함 • 변기에 배설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18~24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광이 좀 더 커져서 보다 많은 양의 소변을 모을 수 있음 • 대변이 나오는 느낌을 지각할 수 있어서 대소변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대소변과 관련된 간단한 용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음
24~3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변이 마려워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만큼 방광의 조절능력이 발달하여 스스로 화장실 변기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음
30~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설 의사를 표현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음을 말할 수 있으며, 밤에도 소변을 보지 않을 정도의 통제능력이 생김

※ 출처: 조운주, 최일선(201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제3판). 창지사.

휴식

-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휴식시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중 1~2시간은 낮잠으로 보충함
- 영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휴식시간에 차이가 있음

<표1-1-3> 연령에 따른 휴식시간

연령	전체 휴식시간	낮잠시간
2개월 이전	18~20시간	
2~6개월	16~18시간	
6~12개월	14~16시간	1시간30분~ 2시간
1~2세	12~14시간	
3~4세	10~12시간	1시간~1시간30분
5세	10시간	30분~1시간

청결

- 영아가 습득해야 하는 청결 습관은 자기 몸에 대한 청결과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로 구분됨

<표1-1-4> 청결 습관 지도의 내용

구분	지도 내용
자기 몸에 대한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에서 놀다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식사 전후, 용변 후에 손 씻기 •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에 이 닦기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규칙적으로 목욕하기 • 규칙적으로 손, 발톱 깎기 •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기 •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속옷 자주 갈아입기 • 용변 후 깨끗이 처리하기
주변 환경에 대한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물건과 사용한 놀잇감 스스로 정리하기 •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 • 휴지 함부로 버리지 않기 • 벽이나 공용 물품에 낙서하지 않기 •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 영아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청결능력이 발달함

<표1-1-5>연령에 따른 청결 기능의 발달

구분	지도 내용
0~2세	• 돌이 되기까지는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지만, 돌 이후에는 점차 언제 씻어야 하는지를 알게 됨
3세	• 어느 정도 씻는 것에 익숙해지고, 서툴지만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고 손을 닦을 수 있음
4~5세	• 혼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할 수 있음

다. 기본생활영역 교사 지도 방안

기본생활 지도의 일반적 원리

- 영아의 자율성을 키워주어 영아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함
-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중보다는 행동의 의도나 노력에 대한 긍정적 강화 등을 통해 영아의 동기를 유발하도록 함
- 언어를 통한 지시나 훈육보다는 교사가 기본생활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어서 영아가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함
-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을 통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영아의 발달단계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기본생활 관련 자조능력을 갖추도록 지도
- 어린이집에서의 지도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임

식사 지도 방안

- 영아의 발달 수준과 건강 및 기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함
- 지나치게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점, 교사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도록 함
- 영아의 식욕이 쉽게 변할 수 있으며 발달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도함
- 식사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함. 식사시간에 늦게 먹거나 못 먹는 것이 많았던 경험은 영아로 하여금 식사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형성하고, 영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사도 안정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 올바른 식습관의 모델이 되어주도록 함
- 정신적 스트레스가 식욕과 섭식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함

배설 지도 방안

- 배설의 문제는 영아에게 수치심이나 죄의식 등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 정서적으로 쉽게 긴장하고 예민한 영아는 배설에 대한 문제와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함.
- 실수한 영아를 꾸중하는 성인의 행동은 영아에게 열등감이나 죄악감이 일으킬 수 있음.

- 실수한 경우에도 야단을 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영아를 감정적으로 안심시켜야 함
- 실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함
- 배설 실수 시기, 실수 횟수, 실수 장소, 영아의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문제 상황 및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관찰된 결과를 기초로 지도 방향을 설정함
-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경우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로 삼기보다는 교사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아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필요가 있음
- 배설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소변 훈련을 할 때 어린이집과 가정의 절대적인 협력 하에 일관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휴식 지도 방안

- 영아는 낮에 충분한 휴식, 즉 낮잠을 자야 피로가 풀리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매일의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별 영아의 체질 및 생활리듬이나 수면습관을 잘 알고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함
- 낮잠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강요하지 않는 지도가 필요함
- 영아들이 하루일과 중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줌

청결 지도 방안

- 강제적이고 지시적인 청결지도는 영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바른 경험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
- 영아의 개인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함. 2세경부터는 스스로 하는 시도를 격려하며 점차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후 교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함
- 강요나 성인의 강압적인 태도는 청결에 대한 거부감, 물이나 비누 등에 대해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씻는 행위를 즐거운 놀이로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함
- 정리정돈을 하기 쉽도록 환경을 구성하여 영아가 정리정돈에 대해 지나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정리정돈 자체도 놀이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함

공동생활 지도 방안

- 영아의 자기중심적 사고 경향을 이해하며 지도함
- 영아의 욕구, 발달단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에 적합하게 지도함
-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 안전 지식과 안전한 행동 등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함
- 시설 설비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영아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기본생활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공갈젓꼭지에 집착하는 경우

(만0세) OO은 공갈젓꼭지를 목에 걸고 등원한다. 하루일과 중에도 거의 모든 시간에 공갈젓꼭지를 빨고 싶어한다.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는 시간, 실외에서 신체놀이를 하거나 OO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갈젓꼭지를 빨고 있다. 교사가 공갈젓꼭지를 입에서 빼려고 시도하면 이빨로 꽉 물어 못 빼게 하고 빠지는 경우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힘들어한다. 특히 낮잠시간,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흥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젓꼭지 빠는 것에 열중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습관적으로 입에 물고 있는 공갈젓꼭지를 빼고, 다른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 영아가 울거나 보챌 때 무조건 공갈젓꼭지를 물려주었던 경우

영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 외부자극 부족

- 생후 67개월까지는 빨고 싶은 욕구가 강함. 그 이후로는 다른 욕구로 옮겨가며 사용 횟수가 줄어들
- 영아가 관심을 가질 만한 외부자극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빠는 욕구가 다른 욕구로의 전이가 어려운 경우

나. 지도 방법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기

- 가정에서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갈젓꼭지 사용시간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영아에게 발달에 적절한 흥미있는 활동 제공하기

- 영아의 발달이나 흥미수준을 파악하여 영아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극 제공하기
- 영아가 놀이에 몰두하고 있을 경우 공갈젓꼭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함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울거나 보챌 때 혹은 영아의 울음을 멈추기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 공갈젓꼭지를 제공하지 않기

-영아가 흥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놀이하고, 언어, 비언어로 영아와 상호작용 하며 다른 외부 자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도록 하기

참고자료

잘못된 육아상식

• 공갈젓꼭지를 물리면 이점이 많다?

당연히 아닙니다!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달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이가 젖을 먹는 사이에 조용해지며 만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엄마들은 자신의 젓꼭지가 공갈젓꼭지로 이용되지 않기 위해 공갈젓꼭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갈젓꼭지는 편리한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중이염이 발생하며, 아구창과 충치가 발생합니다. 또한 젖을 빠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는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지고 유선염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유수유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브라질,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등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공갈젓꼭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가 젖을 물리는 횟수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자주 공갈젓꼭지를 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갈젓꼭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해서가 먼저일까요?

둘째, 공갈젓꼭지를 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물리게 되면 모유수유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빠는 기술을 공갈젓꼭지 때문에 잘못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 직후 젖을 물리지 않고 젖병으로 주었을 때 모유수유를 실패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아이가 공갈젓꼭지나 젖병의 젓꼭지를 빨다면 아내는 엄마 젖을 물렸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엄마의 젓꼭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체중 증가가 늦습니다.

초기에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물게 되면 엄마 젖을 효과적으로 빨지 못하며 이는 아이가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따라서 체중 증가가 늦게 됩니다. 이럴 경우 칼로리와 지방이 많은 후유(後乳)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배고플 때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야 하는데 공갈젓꼭지를 물고 있으면 배가 고파도 잘 울지 않습니다. 따라서 젖을 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넷째, 공갈젓꼭지는 중이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Pediatric Dentistry에 1999년과 2001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공갈젓꼭지를 사용한 경우 중이염의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갈젓꼭지를 빨면 침이 많아지고, 유스타키오관으로 많이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공갈젓꼭지를 빨면 유스타키오관의 정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구강 내 균들이 중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섯째,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아구창에 잘 걸립니다.

아구창을 일으키는 진균은 습기가 있는 표면에 적당한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따라서 공갈젓꼭지는 이런 진균을 아이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 칸디다균의 발생이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많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아구창이 생긴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사용한다면 매일 5분간 젓꼭지를 삶아야 하고 치료가 된 1주 후에는 새 공갈젓꼭지를 사야합니다.

여섯째, 공갈젓꼭지는 충치가 발생할 수 있고 치과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이가 자라는 것과 입의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나중에 치과 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고 이는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 공갈젓꼭지를 사용하면 엄마에게 유선염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젖을 무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아이가 공갈젓꼭지를 규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엄마의 모유수유로 인한 피임기간이 짧아집니다.

공갈젓꼭지는 아이의 빨기 반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엄마의 젖을 빠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임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엄마는 공갈젓꼭지를 아이에게 물리면 됩니다.

※ 자료: 대한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회

2. 편식: 고기만 먹고 채소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만0세) OO이는 점심시간에 고기 이외의 반찬이 나오면 전혀 먹지 않는다. 특히 채소 종류의 반찬이 나오면 교사가 권유해도 먹어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시도 하다가도 그대로 뱉어버린다. 고기 반찬에 다른 채소 반찬을 잘 보이지 않도록 섞어 주더라도 입 안에서 다른 감촉이 느껴지면 바로 뱉어낸다. 교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채소를 삼켰다가도 헛구역질을 하거나 실제로 토하는 경우도 있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인간의 혀에는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미뢰가 있는데 신생아는 성인의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인 대략 1만개의 미뢰를 갖고 태어남
- 미뢰가 많아 맛을 더욱 강렬히 느끼며, 미뢰 수가 줄어드는 8세 이전의 영아에게 편식 경향이 나타나게 됨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므로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음
- 이유식을 할 때 채소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의 부재로 채소에 대한 편식이 두드러질 수 있음

이유식의 실패

- 이의 저작활동을 도울 수 있는 이유식의 변화들 주지 않고 같은 질감과 냄새, 조리방법, 선호하는 음식만을 제공을 통한 편식 습관이 형성됨

부모의 양육태도

- 주식을 거부하였을 경우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한 경험의 결과로 편식이 나타남

부모의 편식으로 인한 다양한 음식 경험 부족

- 부모의 편식으로 인하여 영아가 다양한 음식의 경험 할 수 없었음

부정적 경험

-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고 구토를 했거나 먹기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 위축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억지로 먹이지 않기

- 영아가 먹지 않는 음식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른 선호 등을 상세히 관찰함
-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경우 영아들이 식사시간이나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음
- 영아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거나 조리방법을 바꾸어 영아가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예) 음식 크기: 작은 것 -> 큰 것

“당근 당근이 나왔어요~~ 예쁜 색깔이네. 선생님 한입 OO이도 한입 먹어볼까?”
“와~~~ OO는 브로콜리 다 먹었구나! 브로콜리가 기분이 좋았겠네. 멋진OO이 ”

채소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 각 계절마다 나는 제철 채소와 과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실의 환경을 구성하고 관련된 활동을 계획함
- 제철에 나는 채소와 과일을 맛 볼 수 있는 요리 활동이나 맛보기 활동을 실시함

- 어린이집의 텃밭 또는 보육실 내에서 화분을 이용해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키우면서 영아가 채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화, 노래, 동영상 등을 영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

푸드브리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 푸드브리지 기법이란, 같은 재료를 이용해 단계별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여 싫어하는 음식을 친숙하게 만드는 방법
- 싫어하는 음식을 영아가 좋아하는 데는 최소 8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함

단계	내용	예시
1단계	싫어하는 재료를 놀이도구나 식기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기	파프리카를 용기로 하여 계란찜 만들기
2단계	재료를 알아볼 수 없게 하되 모양이나 색 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기	파프리카로 만든 칼국수
3단계	영아가 거부감을 갖거나 골라내지 않도록 다른 재료와 섞어서 주기	파프리카 고기전
4단계	셰이크나 셔벗 등으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파프리카 셰이크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강요가 계속되면 영아는 점점 해당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지게 됨
- 어린이집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동일한 목표와 기준을 지도하도록 함
- 조리 시 채소를 이용한 육수를 사용하거나 채소를 곱게 다져 좋아하는 고기나 다른 재료와 섞어 조리하는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여 영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식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채소를 썰거나 씻는 등 영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함

3. 새로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

(만2세) OO는 점심시간에 나오는 반찬 중 눈으로 보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먹기 힘들어 한다. 그동안 늘 먹었던 김이나 고기 반찬 만으로 밥을 먹기 일쑤이다. 교사가 한 번만 먹어볼 것을 권유해도 모양이나 색깔, 질감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며 절대 시도하지 않는다. 결국 낯선 재료로 만들어진 반찬은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가. 원인 분석

발달적 특성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음식 네오포비아가 2~5세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부모의 양육태도

- 익숙한 음식만을 선호하는 영아에게 좋아하는 음식만을 제공한 경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어려움
- 부모의 편식으로 인해 다양한 음식에 대한 경험 부족

음식에 대한 다양한 경험 부족

- 이유식 시기부터 부모가 다양한 재료와 조리방법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영아의 음식에 대한 기본적 경험이 부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영아의 기질적인 특성

-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기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마다 다르게 접근하여야 함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전의 부정적 경험

- 새로운 음식을 먹고 목에 걸렸거나 억지로 먹어서 구역질을 하거나 토한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영아의 정서 이해하기

- 영아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먹기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인이 이해가 중요함
-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나쁜 특성으로 단정 짓거나, 잘 시도하는 영아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맛있는 멸치, 바삭바삭하고 짹짹~~~ 아이 맛있다!!”
 “맛있는 멸치 꼭꼭 씹으니깐 짹짹하고 고소한 맛이 나네!”

새로운 음식에 대한 소개하기

- 점심시간에 나온 반찬들에 대해 영아들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맞게 설명해주기
- 식사 이전에 음식을 살펴보며 익숙해 질 수 있는 시간 제공하기

“오늘은 어떤 밥과 반찬이 나왔을까?
 이것은 이름이 숙주나물이에요. 콩나물 친구! 음~~ 고소한 냄새 맛도 비슷할까요?”
 “숙주나물을 같이 무쳐보자. 조물조물 조물조물~~~ 선생님과 숙주나물 무치기!”

숨겨진 식재료 알려주기

- 영아가 먹기 힘들어하는 식재료가 보이지 않게 조리되어 제공된 경우 만약 그 음식을 잘 먹었다면, 다 먹을 때 즈음에 새로운 음식 재료가 영아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아는 먹기 힘들었던 재료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고, 스스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음

“오늘 OO가 스프를 맛있게 먹는구나. 스프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까꿍! 감자 까꿍! 양파~~ 양파
 량 감자가 스프속에 숨어있었네!! 맛있는 스프!~ 맛있는 스프~~”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활동 실시

- 자르기 전의 채소나 식재료들을 영아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는 등 감각적으로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기
- 낯선 음식을 소재로 한 익숙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채소를 소재로 한 동화 들려주기 등의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능하다면 조리실에서 조리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 옷을 입은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는 이런 냄새구나! 같이 맡아볼까?”
 “길쭉한 가지! OO이 옷 색깔이랑 똑같은 보라색이네.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네요.”

푸드브릿지(Food Bridge) 기법 사용하기

4. 잘 먹지 않거나 먹기 싫으면 입에 물고 있는 경우

(만2세) OO은 무엇이든 잘 먹지 않는다. 등원할 때 무엇이라도 먹이려는 엄마와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간식시간에는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적은 양이라도 먹지만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지 않아 하고, 밥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 입에 음식을 그냥 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적은 양도 교사가 먹여주면 억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먹는 양이 적다 보니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체중도 적은 편이며,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가. 원인 분석

가족적 경향

- 감각적으로 예민하여 음식의 질감이나 덩어리 혹은 냄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
- 가족적 특성으로 느린 성장패턴을 보이는 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식욕부진이 나타나기도 함

활동성 낮음

- 잘 먹지 않는 영아의 경우 활동적인 놀이를 거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부모의 과잉기대

- 영아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로 먹는 것을 지나치게 강요한 경우

이유식 실패로 인한 음식에 대한 거부

- 이유식 시기에 적절한 크기의 질감이나 식사 분위기, 맛 등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영아의 경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음

먹는 것에 대한 지나친 강요로 식사시간과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나. 지도 방법

영아의 음식섭취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 영아의 먹는 양, 선호하는 조리방법, 먹지 않는 이유, 가정에서 음식섭취 정도에 대해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 영아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자세히 기록해보기
 ※일주일 정도 기록해보면 대부분은 그다지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됨

단계별 목표 수립하기

- 영아의 음식섭취에 대해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 세우기
 - 목표는 현재 상황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영아가 성취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기

“선생님은 오늘 이만큼 먹어야지~~많이 배고팠거든!! OO이는 얼마나 담으면 좋을까요?”
 “와~~~ 오늘 OO 식판이 텅텅 비었네! 멋진 OO이가 다 먹었구나!
 다 먹어서 선생님도 OO이도 신나네!”

음식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실시하기

-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 관찰하기, 직접 요리하기, 남겨진 밥이 하고 싶은 말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경험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
 - 보육실 내에 음식과 관련된 자료(계절마다 나는 식재료들의 화보, 다양한 요리사진, 영아를 위한 요리책이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림책 등) 제공하기

“여기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네요. 살짝 만져볼까요? 선생님은 냄새도 맡아봐야겠어요.”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당근!”
 “손으로 만져보니까 보들보들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구나.”

다. 유의사항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

- 먹는 것으로 인한 부모와 영아 간의 갈등을 멈추고, 영아에게 먹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맡기며 먹고 싶지 않다는 영아의 몸의 느낌을 인정해 주기
 - 식사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식기, 주방의 분위기 등)을 개선하도록 함
 - 영아가 직접 사용할 용기를 고르게 하거나 간단한 요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식사준비를 함께 하도록 함
 - 식기의 크기를 큰 것으로 하여 영아가 음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느끼도록 함
 - 부모도 함께 식사를 하여 식사시간에는 모두 같이 즐긴다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

참고자료

식욕 돌우기

△ 음식의 색

음식에 있어서 빨간색은 식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크다. 오렌지색도 빨간색과 함께 식욕을 좋게 한다. 반면 녹색은 안정적인 느낌을 주나 보라색과 함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관찰된다. 그러나 빨간색과 녹색, 오렌지색의 조화는 맛을 즐기고 식욕을 돋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배합이다.

△ 주변의 색상

식탁보는 흰색과 빨간색의 큰 체크무늬가 효과가 좋으며, 냅킨이나 식탁 위의 장식품도 빨간색이나 오렌지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자료 : 이영 외(2011). 좋은 부모 되기 첫걸음. 굿네이버스.;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2007). 유아 영양과 요리활동. 창지사.

5. 제자리에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

(만2세) OO는 식사시간에 앉아있기 힘들어한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도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운다. 혹은 밥을 먹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러 돌아다니기도 한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알려주면 자리에 앉아 몸을 비비꼬며 힘들어하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 잘 먹지 않는 영아에게 부모가 쫓아다니며 먹여주어 생긴 습관

불안정한 식사 분위기와 환경

- 지나치게 긴 식사시간
 - 식사시간 중 TV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식사에 대한 집중력 저하

II 신체운동발달영역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신체운동발달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발달은 신체 성장과 운동 기능의 발달로 이루어지나 뇌와 신경계의 발달 및 감각과 지각의 발달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함
- 신체운동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 즉 언어, 인지, 사회정서발달과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 일례로 신체 발달의 문제가 있거나 지연될 경우 영아의 자존감에 손상을 주기 쉽고, 그로 인해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게 됨. 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청력의 문제가 생기고, 언어발달까지도 영향을 주게 됨
- 신체적 성장은 신장과 체중의 변화뿐 아니라 신체비율의 변화, 골격과 근육의 발달, 치아발달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며, 모든 부위가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기보다는 신체의 각 부위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다른 비율로 성장함

- *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등 신체적인 성장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하나 연령에 따라 발달 속도가 다르게 나타남. 크게 두 번의 빠른 성장기가 있는데 영아기와 사춘기로 이 시기에는 매우 가파른 성장 속도를 나타냄
- *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체중의 3배, 신장의 1.5배가 되며, 두 돌 무렵에는 성인 키의 절반이 되고, 출생 시 체중의 4배 정도 성장함. 매년 약 7cm씩 자라서 6세경에는 약 115cm정도로 성장함
- * 근육과 골격의 발달은 생후 1세까지는 근육이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는 못하나 만2세부터는 근육 섬유가 발달하여 점차 두꺼워지고 신경 조직도 분리됨. 영아의 골격은 성인의 골격보다 크기가 작고, 골격의 수도 작을 뿐 아니라 유연하고 부드러움.
- * 신체적 성장은 개인차가 존재하나 연령별 발육표준치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음
- * 신체적 성장은 일차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나 영양공급, 규칙적인 생활습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건강관리 등 외적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됨

- 감각발달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 오감각으로 세분화됨

- * 시력은 출생 후 4개월까지 급속히 발달하며, 유아가 성인의 정상 시력에 도달하는 연령은 5~6세 경임. 영아기에 일시적으로 사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수개월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 후각은 신생아기에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젓 냄새를 구별할 수 있음
- * 미각과 신맛은 출생 시부터, 짠맛과 쓴맛은 4~6개월에 발달함
- * 청각은 생후 1개월에는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고, 4개월이 되면 소리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림. 청력은 언어발달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주므로 청력 선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청력 장애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야 함
- * 촉각은 다른 감각에 비해 늦게 발달되나 입술과 혀는 출생 시부터 발달되어 있음

* 감각발달은 영아의 두뇌 및 신체운동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감각발달의 확인과 발달촉진을 위한 다양한 경험 제공이 매우 중요함

- 운동기능은 대근육 운동기능과 소근육 운동기능으로 발달하게 됨

- * 대근육 운동발달은 자세, 균형, 이동 등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음
- * 머리 가누기를 시작으로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뛰기, 한 발로 서있기, 굽히기, 던지기, 뿔뿔기 등을 하기 위한 대근육 운동 기술은 팔, 다리, 몸통과 같은 대근육 발달과 관련이 있음
- * 손을 뻗쳐 잡기, 손가락으로 물건 집기, 끼적거리기 등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 기술은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과 관련이 있음
- * 운동기능의 발달은 일정한 계열성을 갖고 있어서 기능별 발달 시기가 있으며, 일련의 순서에 의해 이루어짐
- * 영아기 운동기능발달은 근육과 신경조직, 그리고 중추신경과 골격의 성숙에 기초하여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눈, 머리, 목 등의 상체운동에서 팔, 다리 등의 하체 방향인 두미 방향으로 발달하며 신체의 중앙 부위에서 시작하여 말초 방향으로 발달함
- * 유아기에는 달리기나 높이뛰기와 관련된 대근육 운동기술과 단추 채우기나 그림 그리기 등의 눈과 손의 협응에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 이 시기의 운동기술의 발달은 운동이나 춤 추기 등 아동기의 다양한 신체활동 능력의 기초가 됨.
- * 연령별 운동기능발달특성을 참고로 개별적인 운동기능의 발달 수준을 점검해볼 수 있으며, 소근육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알아두면 발달지연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소근육발달은 손으로 물건을 쥐는 모습, 입방체 쌓아 올리기, 그림 보고 그리기 등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음(안호섭, 2012, p31). 다만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해야 함

나.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행동은 신체발달이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주로 발달지연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음
- 신체운동발달영역의 문제는 신체적 성장과 관련된 문제, 움직임 및 운동기술발달지연, 건강 이상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신체적 성장 관련 문제는 성장장애, 비만 등 성장부진과 과다성장으로 나타남
- * 대부분의 영아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일례로 성장 호르몬 부족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인한 성장 장애가 생기게 되고, 과다 영양섭취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소아비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운동기술발달지연은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신체적 성장 및 운동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 운동기술의 발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근육이나 소근육발달의 미숙과 움직임에 대한 경험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간혹 뇌발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운동기술의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음
- * 영아들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선호하는 데 움직이기를 기피하고 싫어하는 영아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이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신체문제 중 건강과 관련하여 신체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신체문제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음
 - *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력, 청력 등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신체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 신체 내부 기관에 이상이 있었으나, 증상이 없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어린이집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있음. 일례로 간질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기를 할 수 있음
 - * 구강 위생 등과 같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영아는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예민하지 못하므로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해야 할 시기를 놓칠 수 있음. 영아기에 신체 각 기관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임
 - * 신체 기관 이상으로 인한 증상은 영아의 외현적 행동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므로 교사의 예민한 관찰이 신체 문제의 조기 발견에 매우 도움이 됨
 - *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다. 신체운동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연령별 신체운동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영아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운동발달 관련 행동을 관찰해야 함
 - 급·간식을 잘 먹는지,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는지, 잠을 잘 자는지, 움직임이 활발한지 혹은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지, 사물을 보는 자세나 소리에 반응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등
- 놀이나 활동 속에서 영아의 신체움직임이나 운동기능을 관찰하고 파악해야 함. 즉, 복합놀이대에 오르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등 대근육 운동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가위로 오리기, 구슬 꿰기 등 소근육 운동기술이 적절히 발달되었는지 여러 장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매일의 시진(어린이집 일과 시작 전의 간단한 신체진단)을 통한 건강 점검과 키와 몸무게 측정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로 예측될 경우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체운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어야 함

- 영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실내·외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영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교구 등을 준비해야 함
-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제공된 시설 및 교구의 안전상태를 반드시 점검·확인 후 제공하도록 함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함

하루 일과 중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30분 이상 마련해 주도록 함

신체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호작용을 해주어야 함

- 신체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연령이므로 도전과 속달을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
- 움직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의 경우 교사의 지지와 격려가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음

신체운동 기능발달에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된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신체 건강과 관련된 이상 증후로 판단될 경우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신체운동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손가락을 사용할 때 많이 흘리는 경우

OO(만2세)은 손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되었으나 급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많이 흘리거나 자주 쏟는다. 손가락을 쓰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소근육 발달의 미숙

- 소근육 협응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손가락 근육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잡는 동작이 정확하지 않거나 입으로 가져가는 손 이동 동작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 연령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것이지만 또래에 비해 손가락을 잡고 떠먹는 동작이 어색하다면 바로 잡아 주는 도움이 필요함

나. 지도 방법

- 손바닥과 주먹이 아니라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한 정상적인 손가락 잡기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함
- 손가락을 고쳐 잡도록 도와주면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더 많이 흘리고 쏟을 수 있음. 교사가 인

내심을 가지고 느린 변화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함. 손가락 잡는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연습 시간을 늘려줌

“이게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야. 손가락은 첫째가 위로 오게 이렇게(시범보임) 잡아야 한단다.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 번 해보자.”

다른 소근육 발달 지체 문제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의 힘과 팔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활동을 하도록 지도함

-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이용해 조각을 집고 맞는 위치에 끼워 넣는(연령에 맞는) 퍼즐 놀이를 자주 하도록 지도함
- 블록 쌓기를 하면서 무너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주의력을 길러줌
- 건반 악기 모형의 장난감을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각각으로 눌러서 소리가 나도록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놀아줌

“이건 피아노야. 피아노는 이 건반 하나에 손가락을 하나씩 얹고 쳐야 하는 거란다. 선생님 손가락 볼까?(시범). 이 뚱뚱이, 길쭉이, 훑쭉이(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 이름)로 피아노를 하나씩 눌러야 해. 여기 건반 많으니까 우리 한 손가락으로 하나씩 눌러보자.”

“우리 OO이~ 조금 밖에 안 흘리고 잘 먹는구나. 계란이 OO이 입속으로 쓱 들어가네~. OO이도 선생님처럼 손가락질 하는구나. 너무너무 잘했어.”

음식을 담은 손가락을 입까지 옮겨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환경 만들기, 이러한 환경을 통해 덜 쏟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음

- 영아의 팔이 짧으므로 편안한 식사를 위해 식탁에 바짝 붙어 앉도록 자리를 정해주고 그릇을 몸 가까이 당겨줌
- 식탁의 높이가 앉은키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은지 확인하고 적절한 높이로 맞추기

“우리 OO이~식탁에 가까이~~ 밥 먹자. 그릇도 OO이 앞으로 당겨서 먹을까?”

다. 유의사항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손가락을 잡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일이므로 영아가 힘들수 있음.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느낌을 주지 말고 더 쉽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며 매일 조금씩 연습하여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함

2. 항상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

OO이는 어린이집 일과 시간 중 거의 대부분을 교사나 벽, 쿠션 등에 기대어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책을 보거나 놀이를 할 때는 물론 간식시간에 같이 음식을 먹을 때도 바르게 허리를 펴고 앉기보다는 주로 무언가에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가. 원인 분석

근육의 힘 부족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이후부터 스스로 앉기가 가능함

생활습관의 문제

평소 가정에서 누워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경우,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누워있는 모습을 자녀가 모방하여 누워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

컨디션 조절 실패로 인한 피로감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거나 쉬는 날 없이 매일 등원하는 아이, 또는 아픈 경우에도 쉬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 누적된 피로감으로 인해 누워서 생활하고 싶어 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영아의 허리 근육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 계획하고 실천하기

- 영아가 관심을 갖는 주제나 놀이, 교구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들과 관련된 신체활동을 실시하여 영아가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허리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영아의 경우 실내, 실외에서 봉봉카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을 실시하기
영웅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는 영아의 경우 영웅 캐릭터처럼 뛰어보기, 걸어보기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

-허리근육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신체활동 : 걷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봉봉카타기, 훌라후프, 줄넘기 등 높이 올려져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 운동, 쌓여있는 물건 내려놓기 등의 운동은 허리근육 강화에 특히 도움이 됨

“OO아~ 자전거 타볼까? 저기 있는 나무 앞까지 가보자~”
“OO이 캥거루처럼 뛰어볼 수 있겠니? 하나, 둘, 셋!”

영아가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경우 격려하기

가정에서 평소 누워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해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활동에 참여하는 영아의 경우 바르게 앉아 생활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바르게 앉았을 경우 칭찬과 격려하기

"OO아 벽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기대어 앉아 그림을 그리면 OO이 허리가 삐뚤어져서 키도 크지 않고,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된단다. 허리를 쭉 펴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볼까?"
 "OO아, OO이가 쌓기 영역에 누워있으니까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겠구나. 친구들이 OO이한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OO이가 친구들한테 밟힐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놀이하자~"

가정과의 연계

가정에서도 기대어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지 않고, 바르게 앉는 자세를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협조 구하기

"OO이가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는구나. 와우~ 정말 멋지다!"
 "OO아, 누워서 책을 보면 눈이 아프대. (영아를 앉혀 주면서~)우리 앉아서 책 볼까?"

영아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조절하기

- 잠이 부족하거나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껴 기대어 앉거나 누워있고 싶어 할 수 있음
- 영아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낮잠시간의 양,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하루 일과 중 영아의 활동량 조절 등을 통해 영아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특히, 아침에 잠을 깨는 시간 등은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함

다. 유의사항

가정과의 연계

- ☑ 기대어 앉거나 눕는 습관은 가정에서 부모를 모방하여 형성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 구하기
- ☑ 영아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귀가 후 가정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기, 잠들고 깨는 시간 조절하기 등을 부모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면담을 통해 알리기
- ☑ 누워서 생활하거나 바르지 않은 자세로 기대어 앉는 것이 장기간 습관이 될 경우, 척추측만증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아짐. 바르게 앉아 생활하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영아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가 좋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함

3. 움직이기를 싫어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이

OO이(만2세)는 어린이집에 오면 마음에 드는 장난감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하루 동일 그 자리를 거의 떠나지 않는다. 놀이 활동 시간에도 완전히 일어서서 움직이지 않고 엉거주춤 기듯이 조금 자리를 옮길 뿐이다. 바깥놀이 시간에는 나가긴 하지만 한 쪽에 앉아 다른 아이들 놀이를 조용히 보고 있기만 하고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가. 원인 분석

신체적 측면 : 허약함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쉽게 지친 경험이 쌓였거나 만성적인 수면부족으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능하면 적게 움직이려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음
- 비만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쉽게 지치게 되거나 남들 앞에서 비만으로 인해 둔하고 느린 움직임으로 놀림을 받을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성격적 측면 : 유난히 겁이 많거나 소심함. 경쟁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

- 성격적으로 소심하여 움직임에 따른 결과, 즉 넘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움직이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이 쌓일수록 점차 동작을 하는 데 자신감을 잃게 되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과도하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영아일 경우 경쟁적인 놀이일 때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기고는 싶으나 능력에 자신감과 확신이 없으면 아예 피함으로써 지는 상황을 대면하지 않으려고 함. 즉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의 표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모든 움직임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음

신체적 이상

눈에 띄지 않는 신체적 이상 즉 심장이나 신장, 근육 장애 등으로 움직이기를 불편해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 :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 아이를 잘 관찰하여, 식사나 간식은 적절한 양을 잘 먹고 있는지, 기온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 부모님과 상의하여 가정에서의 생활습관, 특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양의 식사를 시간 여유를 두고 끝까지 하도록 조언함

"천천히 먹어보자. 꼭꼭 씹어서 우리 OO이, 맛있게 다 먹자.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좋은 행동이란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이가 건강한 어린이야. 밤에 일찍 자기, 약속!"

비만한 아이 : 신체적 자신감을 복돋아 주고 움직임을 지원하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줌

“선생님이랑 저쪽으로 가서 놀아볼까?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해보면 더 재미있을 거야.”
“이것 좀 같이 들어줄래? OO이가 같이 들어주면 참 좋겠다.”

움직임과 외모에 대해 좋은 점을 발견하여 자주 칭찬함

“OO이 걷는 모습이 참 씩씩하고 예쁘구나!”

성격적으로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아이 :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경쟁놀이를 파하기

쉬운 신체활동을 여러 가지 계획하여 조금씩 참여하도록 이끌어 줌

“(놀이기구에서) OO이는 오늘 여기까지만 올라가 볼까? 정말 잘했어.”

신체활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고 등수를 매기는 경쟁놀이는 피하도록 함

“OO이도 같이 해보자. 우와~~~ 잘하네.”

활동 공간 주변에 안전장치(예. 선생님이 지켜봄)가 있음을 확인시켜 줌

“선생님이 OO이 잘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봐, 선생님 여기 있네? 선생님이 보고 있을 거야.”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벌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 줌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다치지 않았니? 다시 해보면 돼. 괜찮아.”(“조심해야지”라는 말을 하지 않음)

과도하게 경쟁심이 강한 성격의 아이 : 협동하는 놀이를 통해 칭찬을 경험하게 함

- 교사의 지속적이고 섬세한 관찰을 통해 아이가 경쟁심 때문에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유형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 영아가 가진 약점을 간파하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관찰하고 격려해 줌

“선생님과 같이 해보자. OO이는 잘하는데~~~씩씩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움직여보자.”

경쟁적인 놀이를 피하고 협동하여 완성하는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이때 교사가 모든 아이의 역할을 골고루 중요하게 느끼도록 격려하고 과정과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필요함. 기초적인 협동놀이의 경우에도 자신의 역할에 불안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혀 경쟁부담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이 그림 재미있게 생겼지? 우리 OO이, **이, @@이 다 같이 색칠해볼까? OO는 파란색 칠할거야?
이 그림에 잘 어울리네. **이는 꼼꼼하게 잘 칠하네.
@@이 색깔도 이 부분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니깐 더 재밌지?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아이 : 신체적 이상 증후를 관찰·발견하기

-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아동은 불편한 데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권유함
- 아동의 발달상황에 대해 전문의와 상의해서 향후 건강관리 방안을 세우고 신체발달 현황, 영양섭취 수준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생활지도를 함

다. 유의사항

신체적으로 허약한 아이는 가능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많이 잘 수 있게 하고 식사를 여유롭게 충분히 하도록 부모에게 조언함

- 극도로 허약한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하는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준비하여 급식할 수 있게 하고, 가정에서는 밥을 떠먹여서라도 충분한 양이 섭취되도록 지도함,
- 이런 아이들은 위가 작고 약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보다는 자주 조금씩 먹도록 함

“몸속에는 OO가 아까 먹은 음식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움직~ 움직 움직여보자. 배가 운동을 해서 음식도 잘 소화되는데!! 우리 OO이 건강해지겠네!!”

4. 쉬지 않고 심하게 많이 움직이는 아이

OO이(만3세)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스스로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금방 싫증을 내고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건드려 보거나 대부분의 경우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 끼여 들어 휘방을 놓고 별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놀이 활동시간에도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가. 원인 분석

주의집중력 부족

- 영아들의 기본 수준보다 낮은 주의집중력으로 인해 과업 몰입이 어렵고 활동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뇌 손상이나 체액 성분의 불균형과 같은 생물학적인 원인에서 주의집중력 부족이 생김

인지발달 장애

- 인지발달 장애로 인해 충동성 조절과 신체운동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아이가 가장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을 찾아내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함

놀이시간에 아이가 가장 놀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교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멈춰!” 놀이 또는 신호등 놀이를 개발하여 아이가 빨간 신호등이나 ‘멈춰’ 구령이 있으면 한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도록 게임처럼 지원함

- 선생님이 빨간색 신호등을 켜면(또는 ‘멈춰’라는 말이나 호루라기를 불면)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얼음’처럼 가만히 있기로 함
- 한 아이에게만 적용한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번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멈춰 또는 신호등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줌 그러나 쉬지 않고 움직이는 OO이에게는 눈에 띄지 않게 더 많은 기회를 줘서 자주 놀이에 참여하도록 함
- 빨간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서(정해진 코너)에 가서 나오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도록 하거나 아끼는 것을 잠시 보관해 두도록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함

“우리 신호등 놀이할까요? 지금 여기는 파란색 신호등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도 되고요. 하지만 빨간 신호등 바뀌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하는 거 알죠? 이번 시간 신호등 놀이 주인공은 OO이니까 선생님이 ‘빨간 신호등’ 하면 딱 데 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알겠지, OO아?”

- 발달 장애의 경우 아이의 흥미와 이해도가 자신보다 낮은 연령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이의 반을 실제 연령보다 아이의 발달수준에 맞춰 편성하는 노력도 필요함
- 체액 성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 요법 치료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 증상이므로 이를 부모에게 잘 설명하여 병원을 찾아보도록 안내함

다. 유의사항

- ☑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줄 때 확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는 입장으로 상담을 함
- ☑ 부모는 대부분 아이의 문제를 발달이 느린 정도의 정상 범위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 선생님의 경험과 전문적 식견으로 볼 때 다른 아이와의 행동 차이가 크다는 의견을 전하고 의학 전문가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기, 이 때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평소 꾸준히 적어온 관찰일지, 발달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쉬움
- ☑ 영아의 행동 관찰을 상세히 해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함. 영아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 있음
- ☑ 아이의 움직임에 대해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크게 화를 내어서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의 행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강화 효과를 갖고 오지 않도록 주의함

- ☑ 가정에서의 아이의 행동과 기관에서의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 혹 차이가 있다면 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가정과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함

5. 눈을 찡그리거나 비비고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

만4세 남아인 OO이는 책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려고 고개를 앞을 숙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며, 사물을 볼 때 미간을 찡그려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한다. 만3세 여아인 OO이는 놀이시간에 눈을 자주 비비며, 눈이 충혈되어 있다. 가끔씩은 눈물을 질끔 거리기도 한다.

가. 원인 분석

시력 문제

- 눈을 찡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흔한 원인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책이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아이의 행동은 시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크며 근시나 난시, 약시, 사시 등으로 인한 것임
- 시력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천천히 완성되는 것인데 갓 태어난 아기의 시력은 매우 낮아서 사물을 어렵듯이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이나 6개월이 지나면 0.1정도의 시력을 갖게 되고 두 살 때엔 0.3정도가 되며 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1.0정도의 시력을 갖게 됨

속눈썹 찡림 등 이물질 자극

- 눈을 자주 비비고 충혈되어 있는 경우 원인은 주로 속눈썹이 찡려서 눈을 가렵게 만들거나 이로 인한 각막자극으로 인한 것임

심리적 문제 및 피곤함의 표현

-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 눈을 찡그리거나 사물을 가까이 보려는 행동, 눈을 비비는 등 아이의 외현적 행동은 원인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가장 우선적임.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눈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심리적인 불안감, 피곤함과 졸림 등의 표출 방안일 수 있으므로 행동의 빈도나 발생 시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가정에서의 아이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슷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부모와 면담을 통해 병원에서 안과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III 사회성발달영역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사회성발달에 대한 이해

- 사회성이란 한 개인의 사회적응정도나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말함
- 애착이 특정한 사람과의 친밀감을 뜻한다면 사회성은 보다 다양한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
-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성의 정도는 대부분의 장애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국립특수교육원, 2009)

1) 시기별 발달과업

영아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

애착관계의 형성이 잘 이루어진 아동들은 부모와 격리되거나 낯선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이후 긍정적인 사회성발달의 토대가 됨

*영아기 사회성의 특징

- ☑ 주양육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이후 발달의 토대가 된다.
- ☑ 영아는 감각을 사용하여 기초적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간다.
- ☑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시작한다.
- ☑ 집단양육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 ☑ 18개월 이후부터 슬래잡기나 주고받기와 같은 상호적 역할이 가능하다.
- ☑ 공통의 관심거리가 있으면 단순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 ☑ 언어습득과 표현기술이 발달하며 성인이나 또래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를 보인다.

2) 사회적 이해와 자아개념발달

-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뿌리는 사회적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아동의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됨(Lewis & Carpendale, 2004)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줌
- 사회성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아개념발달을 지원해야 함

구분	내용
자기인식과 사회적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존재, 외부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자아를 이해하는 것
자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자신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 짓는 속성, 능력, 태도, 가치를 조합하여 (Shaffer, 2006)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형성하게 됨 • 12개월~24개월 : “나는 엄마를 소리 지르게 만들 수 있어!” • 자신과 타인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됨 •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신에 대해 더 잘 생각하게 되며, 초기에는 주로 나이나 성(性)과 같은 속성으로 자신을 구분(예. “나는 두 살”) • 만2~3세 : “나는 언니가 있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자신을 매우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 정의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며 자신의 가치, 능력, 통제에 대한 평가의 결과 *가치 : 나는 날 좋아해/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능력 : 나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어 / 나는 잘 못 해 *통제 : 선생님은 내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 주실 거야. • 영아기 아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행동과 실제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음 •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자기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사회적 기대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 • 그리고 자기조절능력과 관련 옳고 그른 행동이나 친사회적 기술에 대해 가르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Marjorie, 2009)

나. 사회성발달영역에서의 문제행동 원인

1) 아동관련 요인

인지적인 발달 특성 상 자기중심적임

- 발달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임
-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 표현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나 성인의 지시에 잘 반응하지 못함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부족

- 사회관계는 유아가 자기 정서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 있으며, 이는 자아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발달과 관계됨
- 미숙한 정서 조절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표현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움
-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부족으로 공격성 표출

- 어릴수록 신체적 공격성이나 물리적 공격성이 두드러짐

사회적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 행동들, 자신 관련 행동들, 학업 관련 기술들, 자기주장 행동, 또래 수용, 의사소통 기술 부족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유아는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나 충동적 행동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심리적인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면 짜증의 증가, 적대적인 태도 증가, 주의 산만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함

낮은 자아존중감 및 위축된 자아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

자아존중감이 낮을 시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어 표현에 두려움을 느낌

2) 부모 및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요인

부모의 양육태도

구분	내용
부모의 강압적 태도	부모가 지나치게 유아를 통제하여 유아가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짐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보호를 받은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할 수 있음. 또는, 과잉보호로 인해 스스로 해본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될 수 있음
공격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 또는 묵인	유아의 공격행동을 웃어넘기거나 어리광으로 받아주거나 묵인하면 유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
유아의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부모가 유독 반응을 보임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유아가 공격적 행동을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을 보이면 유아는 성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다른 성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

-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비난, 협박, 욕박지름 등 부정적인 언어 경험 제공으로 인한 학습
-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이 상호작용하는 방식 모델링
 - 성인이 유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유아의 생각이나 무시하는 경험
 -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애정철회를 자주 사용한 경험
- 성인의 부정적인 상호방식이 유아에게 주었던 강력한 영향, 통제의 경험을 학습하여 또래에게 사용하게 됨

3) 환경적 요인

충분한 수의 놀잇감, 충분한 놀이공간 및 활동 시간 제공 부족

-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부족으로 소유로 인한 갈등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모양, 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시 소유로 인한 갈등 발생

- 충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 충분한 활동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아의 신체 및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영아가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영아가 안정적으로 쉬지 못할 시 영아의 신체 및 정서적 균형감이 깨어짐

부정적인 양육환경

- 일관적인 양육자가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음
 - 돌보는 사람이 일관적인 양육을 통해 영아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됨
- 온정적으로 반응적인 양육환경 제공 부족
 - 영아의 기본적인 신체욕구 및 감정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하게 반응함을 통해 영아는 사회에 대한 신뢰, 자존감 등을 형성할 수 있음

사회성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무는 경우

(만1세) 영아가 가지고 놀던 모형 컵을 책상 위에 두고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교구장으로 이동한다. 그 때 다른 친구가 책상 위에 있던 컵을 만지고, 그 모습을 본 영아를 빠르게 달려와 친구의 팔을 물며 컵을 세게 잡아당긴다. 친구가 소리를 지르라 “내꺼야!”하며 얼굴을 밀치고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분석

- 자신이 원하는 컵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고는 자신도 놀라서 울
- 아직 어려서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놀잇감 나누어 쓰기’가 어려움
- 놀잇감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름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의 경우 성인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무는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음
-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를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나. 지도 방법

1) 사전예방법

사전예방법은 성인이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무엇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지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함. 예를 들어 영아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쉽게 좌절을 느끼고 주위 또래에게 향하는 것을 관찰했다면 교사는 영아가 활동 중 문제를 갖는지 살펴야 함. 이는 교사가 영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문제해결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의미함

2) 즉각적 개입

자신에게 필요한 놀잇감을 뺏기기 싫어서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영아의 마음을 읽어준 뒤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는 상호작용을 함

• 상호작용 1단계 :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읽어주기

- (1) 영아를 비언어적으로 수용하기 : 두 아이를 우선 각각 안아준다.
- (2) 영아의 상태를 읽어주기

“놓고 있는 컵을 친구가 가져가는 줄 알았나보네.”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는 게 싫었구나.”
 “친구가 옆에 오는 게 싫었구나.”
 “친구를 물고 밀치고 나선 너도 놀랐구나.”

• 상호작용 2단계 :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이해하기

- (1) 교사가 밀친 행동에 집중하여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함
- (2)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생긴 것에 초점
- (3) 공격 행동으로 인한 친구의 감정 읽어주기

“물어서 친구가 아프겠다”
 “소리를 질러서 친구가 놀랐겠다”

(4) 친구 행동의 의도를 읽어주기

“친구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놓고 싶어서 컵을 만질 수도 있지.”

• 상호작용 3단계 : 행동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주기

- (1) 단호한 태도로 전달하되 영아가 무서움을 느끼지 않게 함
 감정은 공감해주되 영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한함
 낮은 목소리로,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전달

“친구가 가져가더라도 물거나 때려서는 안돼”
 (교사가 자신의 손가락을 입 위에 얹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임)

(2) 물린 친구의 아픔을 상기시키기

(물린 상처를 보여주며) “물면 친구가 아파.”

(3) 무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

• 상호작용 4단계 : 적절한 대안 행동 지도하기

(1) 나-전달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시키기

“친구에게 내가 놓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렴.”

3) 예방적 접근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에 성인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격행동을 하기도 함. 무는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교사의 주의를 끌어냈다는 측면에서 무는 행동을 강화하여 지속시킬 수 있음 따라서 평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줌

(1) 영아의 말과 행동을 적극 반영하기

영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영아의 감정이나 행동 반영하기

(2) 영아의 감정에 공감하기

영아가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발달적으로 아직 ‘나누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집단생활에서 필요하므로 나누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1) 교사가 모델링을 보여주기

아직 또래의 의도나 입장을 고려하기 힘든 영아이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놀잇감이나 간식 등을 나누어주며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2) 나누는 행동을 할 때 격려하기

영아들이 또래와 나란히 놀이하고 있거나 자신의 놀잇감을 선뜻 건네주는 상황을 보면 교사가 이를 읽어주고 지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강화

“우와~ 같이 하니깐 재밌겠다.”
 “친구 하라고 빌려줬구나. 고마워!”

물기 예방하기

(1) 돌 전후의 영아들은 이가 나기 시작하며 무언가를 깨물고 싶은 욕구를 느껴 또래에게 물거나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평소에 잇몸이 간지러워 놀잇감이나 인형을 무는 경우에도 물지 않도록 얘기하기
 치아발육기 등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 영아의 욕구를 수용하기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지도 Tip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언어적인 설명과 함께 교사가 행동으로 보여줌
- 자신의 입장을 언어로 표현하는 동극 활동 활용하기

구강기 영아의 특성 이해하기

- 생후 1년 전후의 구강기
-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 중 제1단계는 생후 1년 전후까지의 구강기
- 이 단계에서는 입과 구강 부위에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가 몰려있음
- 손가락이나 젓꼭지를 빨거나 입에 닿는 것을 무는 것과 같은 구강 활동이 영아들에게 쾌감을 주게 됨 이 시기 구강을 통한 쾌감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고착 현상이 일어나므로
- 영아의 빨고 무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 요구됨

2. 할퀴는 경우

(만2세)OO이는 간식을 먹기 위해 교사 옆에 앉는다. OO이가 옆자리에 앉자 **이가 “아니야!”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어 얼굴을 할퀴다. 교사가 또래를 얼른 떼어놓자 OO이는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 원인분석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김

- 18개월경이 되면 동생이나 또래와 같은 경쟁자에게 자신의 애정대상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것을 두려워 하면서 질투 정서가 나타남
- 또래에게 교사의 관심을 빼앗긴 적이 있거나 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보살핌이 줄어든 상황 등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집단생활을 하고 있지만, 발달적으로 아직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음
- 기질적으로 예민하여 또래가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 부족

- 또래가 그저 간식을 먹으려고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
- 또래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려거나 교사의 관심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상황을 해결한 사회적 기술 부족

또래의 행동이 싫을 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 모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교사의 개별적인 돌봄을 원하는 상황에서 또래를 방해가 된다고 여김
- 상호작용 1단계 : 감정 반영하기
 - (1)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우는 영아를 앉아서 달래면서 할퀴 영아의 마음 읽어주기

“(등을 토닥이며) 아파서 어쩌나~, **가 OO이가 곁에 앉는 것이 싫었나보네.”

• 상호작용 1단계 : 할퀴 영아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속상한 기분 읽어주기

“(울고 있는 영아를 토닥이며)OO가 선생님이랑만 있고 싶었구나.”
 “갑자기 친구가 옆에 앉아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친구를 할퀴고는 OO이도 혼날까봐 걱정이 돼서 우나보네.”

• 상호작용 2단계 :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OO이도 간식 먹으려고 왔는데 **이가 할퀴서 놀라고 아프겠다”

• 상호작용 3단계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할퀴기와 같은 공격 행동은 학습되기 쉬우므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안 됨을 알려줌

“곁에 오는 것이 싫어도 친구를 할퀴서는 안돼.”
 “그렇게 하면, 친구가 아파.”

• 상호작용 4단계 : 적절한 방법 제시하기

영아의 언어적 발달수준에 맞추어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함

“불편할 때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아가 진정이 되면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간식을 먹어야 함을 설명

“**처럼 친구들도 배고파서 이렇게 같이 앉아 간식 먹어야 돼.”

같이 먹는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돕기

“우리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노래를 같이 부르며 죽을 식혀볼까?”

2) 예방적 접근

(1)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만2세 영아의 경우 비슷한 활동을 각자하는 평행놀이를 즐김
- 점차 또래와 교류하는 놀이·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비슷한 기질이나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끼리 가까이 있게 하거나 교사가 놀이에 초대
교사가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며 영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해하며 놀이에 개입함
두 아이가 각자의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교사가 놀이 과정이나 영아의 행동을 큰 소리로 묘사해주어 아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줌

“OO이는 죽이 뜨거워서 후후 불고 있구나. **야, 우리도 불어보자.”

다. 유의사항/ 참고사항

영아의 손톱 상태를 가정과 연계하여 매일 확인

- ☑ 할퀴기, 꼬집기 등은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한 영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공격 행동임
특히, 영아의 손톱은 짧아서 더 날카로우므로 일상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함
- ☑ 할퀴기 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공감 후에 행동기준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먼저 행동을 제지한 후에 공감해주는 순서로 바꾸어 할 필요가 있음. 영아는 때로 훈육자의 첫 번째 긍정적 반응으로 자칫 제지의 전달이 불충분할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보다 단호한 제지 반응을 먼저 해 줄 필요가 있음. 먼저, 즉각적으로 손을 잡고,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친구를 할퀴면 안돼”,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친구를 할퀴면 안되는 거야.” 제지를 먼저하고 나서 “속상했구나. 그래도 할퀴면 안돼.”라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함
- ☑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단계적인 접근의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제지를 한 후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함

3. 놀잇감을 던지는 경우

(만1세)주변의 놀잇감을 별 이유없이 장난감아 던진다. “친구가 맞으면 아프다.”, “놀잇감 망가진다.”하면서 행동을 제지해도 “던질 거야.”라고 하면서 보란 듯이 던지기를 계속한다. 교사가 던지지 못하도록 팔을 잡으면 교사를 발로 차며 공격한다.

가. 원인 분석(이론적 근거 포함)

-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도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반복적으로 던지고 싶어할 수 있음
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임
- 던지고자 하는 욕구를 제지하자 계속 하고 싶어하거나 속상해서 공격행동을 보임
- 발달적으로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가 형성되지 않은 시기임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못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던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재미삼아 던질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 감정 반영하기

- 영아들의 전형적인 발달단계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임
- 던지는 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을 반영함

“OO이는 던지는 것이 재미있나 보네.”
“재미있는데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 계속 하고 싶어서 선생님을 때리는구나.”
“하고 싶은 걸 선생님이 못하게 하니 속상해서 선생님을 때리는 거니?”

• 상호작용 2단계 : 다른 입장을 설명하기

“던진 걸 친구가 맞으면 아파.”
“놀잇감이 망가지면 가지고 놀지 못해.”
“선생님은 친구가 맞을까봐, 놀잇감이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 상호작용 3단계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히 알려주기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기

“재미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놀잇감을 던지면 안 돼.”

• 상호작용 4단계 : 적절한 대안활동 찾아주기

- 던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던지기 놀이 기회 주기
- 콩주머니 던지기, 스카프 던지기, 형겅 공 던지기 등

2) 예방적 접근

- 자신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도록 격려하기
- 차거나 때리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상하고 화나게 한다고 알려주기
- 하고 싶은 욕구를 조절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할 때 격려하기
- 교사의 권유나 설명을 받아들여 던지기를 중단하면 진심으로 격려해주기

4. 놀잇감을 뺏는 경우

(만2세)놀잇감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고, 친구가 가진 놀잇감도 자주 뺏는다. 또래들이 같이 놀이 하고 있으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

가. 원인분석(이론적 근거 포함)

- 1) 친구와 놀고 싶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친구 놀잇감을 빼앗거나 놀이를 방해할 수 있음
- 2) 친구가 가진 놀잇감을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빼앗는 것일 수도 있음
- 3) 친구 것을 빼앗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발달적으로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임으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에 몰입되어 있음
- 4) 놀잇감 등 물건을 나누거나 요청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음
 - 모든 놀잇감을 혼자 소유하려고 함
 -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 소유에 대한 갈등이 90~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건 나누기는 또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교사는 영아가 또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함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1) 친구와 놀고 싶거나 또는 그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할 수 있음

• 상호작용 1단계 : 영아의 욕구 인정해주기

“결에 오는 것이 싫어도 친구를 할켜서는 안돼.”
“그렇게 하면, 친구가 아파.”

• 상호작용 2단계 : 친구의 입장 설명하기

“친구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네가 가져오면 빼앗는 거야.”

“친구 것을 빼앗으면 친구가 속상해.”

“소리를 지르거나 친구를 불편하게 하면 친구들이 짜증나서 같이 놀자고 안 해.”

• 상호작용 3단계 : 용납되지 않는 행동 설명해주기

- 잘못에 대해 지적할 때 아이가 아니라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다른 사람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동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려주기

놀고 싶다고 친구가 놀고 있는 놀잇감을 가져오면 안 돼.”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소리 지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친구들 놀이를 방해하는 거야.”

• 상호작용 4단계 : 적절한 대안 알려주기

“친구한테 나도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자.”

“돌아가면서 같이 놀자고 하자, 너 놀 동안 ‘기다릴게’라고 얘기해보자.”

2) 예방적 접근

- (1) 소유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물리적 환경 구성하기

구분	내용
충분한 수의 동일한 놀잇감 제공	· 36개월 이전 영아들이 생활하는 학급에서는 놀잇감을 다양하게 구비하기보다 모양·색이 동일한 놀잇감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충분한 놀이공간 확보	· 영아는 자신의 놀잇감,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옆 또래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잦음 · 개별적인 놀이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영역 간의 통선을 고려하여 환경구성
충분한 활동 시간과 기회 제공	· 일과에 충분한 놀이시간을 계획하여 영아들이 여유를 가지도록 함 · “친구가 아직 다 안 놀았대. 우리가 조금 기다리자.”

- (2) ‘나누기’ 경험하기

구분	내용
좋아하는 또래에게 영아가 애착을 갖는 장난감이 아닌 것부터 또래에게 빌려주도록 지원하기	자기중심적인 영아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나누는 것은 거부하므로 일상적인 용품이나 간식 등을 나누는 경험을 할 기회 제공

- (3) 자기조절기술 배워 나가도록 돕기

구분	내용
영아는 주변 성인의 반응이나 모델링을 통해 자기조절기술을 배워나감	· 잘못된 행동이라고 심하게 훈육할 경우, 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성인이 ‘안 돼!’라고 반응한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음 · 행동의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한 훈육을 반복할 경우 아이는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음

유사한 행동을 거듭할 때 성인이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음 · 성인의 여유 있고 반복적인 안내를 통해 영아는 자기주장과 자기조절기술을 배울 수 있음
----------------------------------	--

5. 교사에게 매달리는 경우

(만1세)엄마의 등 뒤에 숨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영아는 엄마가 나가자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블록을 꺼내 놓는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 둘 친구들이 등원하자 영아는 놀이를 멈추고 교사에게 다가가 안긴다. 일과 중에도 영아는 교사의 주변을 맴돌고 교사에게만 반응을 보인다.

가. 원인분석(이론적 근거 포함)

1) 처음으로 겪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함

- 주 양육자인 부모와 떨어져 낯설고 생소한 환경인 어린이집에 혼자 남겨지는 경험은 영아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불안감을 갖게 할 수 있음
- 이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또래에게 관심을 두지 못함

2) 교사를 애착대상인 엄마의 전이대상으로 느껴 교사에게 매달림

-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상황에서 애착전이대상(교사) 역시 자신과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음
- 또래보다는 교사에게만 관심을 가짐

3) 집단생활의 긴장에서 오는 불안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

4) 또래관계 맺기가 어려움

- 아직 상호간에 의사표현이 서툴다보니 관계나 놀이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
- 만2~3세경까지는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혼자서 놀거나 또는, 자신이 참여하지는 않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임

나. 지도 방법

1) 즉각적 개입

- (1) 집단생활에서 오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적절히 표출하지 못하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이 아직 어려움
- (2) 자신의 불안감으로 친구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상호작용 1단계인 감정 수용하기까지만 적용함

(3) 영아의 불안감 수용하기

- 엄마를 대신해서 안아서 토닥거려줌
- 불안감 반영하기
- 안기는 영아를 잠시 토닥여주기

“엄마가 가셨네. 끝나고 다시 오실거야.”
“친구들이 아직 낯설구나.”

2) 예방적 접근

(1)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적응 돕기

- 부모에게 영아가 겪게 되는 정서적 불안감 이해시키기
- 어린이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초기 적응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 제공하기

- 소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래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놀이 제시
- 형태 변형이 쉬운 밀가루 반죽, 점토, 종이 등을 제공하여 함께 하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 제공
-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OO이는 빵을 만들었네. 우린 그릇을 만들었는데.”

다. 유의사항 / 참고사항

1) 지도 Tip

- 등원 시 엄마와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데려오기
- 엄마를 대신할 물건을 가정에서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기
발달적으로 엄마와 헤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을 느끼는 시기임으로 가정에서 영아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놀잇감 등을 가져오는 것도 도움이 됨

2) 적응프로그램 기간동안 일관적인 부모님의 협조 요청하기

- 일관적인 등,하원 시간 지키기
영아는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고, 일이 끝난 뒤 나를 데리러 올 것임을 이해하게 됨
-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부모의 신뢰 형성하기
부모가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음

3) 하원 후 가정에서 온정적인 시간 보내기

- 기분이나 건강 상태도 또래와 어울리기를 시작하는 영아에게 중요한 요인
- 가정에서의 충분한 휴식과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 부탁하기

IV 언어발달영역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가.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의 이해

발달에 대한 기본 이해

- 대부분의 영아들은 연령에 따라 발달적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일반적으로 특정시기에 특정 기술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음
- 생애초기일수록 제 발달영역은 상호관련성이 높음
- 발달은 대개 일정한 순서가 있고 특정 발달영역이 강조되는 시기가 있으며 예정된 형태를 따라가므로 예측가능하나 연령이 어릴수록 개인차가 많이 나타남
-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유전, 영양상태,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매우 다양함
-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결과로 성취되므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함
- 언어와 인지행동발달은 감각 운동기 시기에 지각운동발달이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발달지체 현상이 초래됨
- 영아는 생애 첫 2년간 인지의 기초를 이루는 사물인식, 공간지각, 시간개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초적 인식력을 후천적 기제인 언어사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습득하게 됨
- 표준발달지표는 특정 시기에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으로서 발달수준을 이해하는 참고자료임
- 정상발달 시기를 벗어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표준발달지표에 준하여 문제 또는 장애 등의 판단을 함부로 하여선 안 됨

언어의 정의

- 언어란 사물, 사건, 생각 등을 표현하고자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말, 문자, 몸짓의 상징 체계로서 의사소통의 일차적 수단임
- 언어는 구어(spoken language)와 문어(written language)의 언어적 요소와 억양, 강세, 속도의 준 언어적 요소, 몸짓, 표정과 같은 비 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함

언어사용의 목적

- 언어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 간의 생각과 의견과 감정에 따른 의사를 교환하는 것임

언어의 유형

- 언어는 대개 음성언어, 문자언어 또는 이해언어, 표현언어로 그 유형을 구분함
- 음성언어는 청각적 방법에 의한 언어로서 말하기, 듣기가 해당됨
- 문자언어는 시각적 기호에 의한 언어로서 읽기, 쓰기가 해당됨
- 이해언어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음성적, 시각적 기호의 해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는 언어로 듣기와 읽기가 해당됨

- 표현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산출하는 음성적, 시각적 기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언어로 말하기와 쓰기가 해당됨

언어의 구성체계와 숙달과제

- 언어의 구성은 크게 말소리, 형식, 의미,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인에 따라 소리체계, 문법체계, 의미체계, 사회적 상호작용체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구분	내용
말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는 언어의 소리체계로서 나/너, 물/불에서처럼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이나 어조, 강약, 억양이 있어 이들에 대한 특성과 차이에 따른 소리 이해 및 소리표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 말소리 체계에 대한 숙달을 통해 음절,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하게 되는 것임(예/에, 공/콩)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은 언어의 문법체계로서 구, 절, 문장 구성을 위한 단어의 배열을 의미하며 말의 구조인식 이해와 정확한 어순으로 표현하기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구조인식 이해의 예 : 사람, 사람들 에서처럼 ‘들’의 조사가 연결된 경우는 여럿을 의미함 *어순의 예 : ‘안 밥 먹어’로 표현하지 않고 ‘밥 안 먹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를 단어나 문장의 의미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의미 이해하기, 의미에 맞는 말로 표현하기 등 의미체계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의미 이해하기의 예 : ‘안녕’이라는 말은 만나서 반갑다와 헤어짐을 의미함 *의미에 맞는 말로 표현하기의 예 : 옷을 가방이라고 하지 않고 가방을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은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상황에 따른 언어사용의 적절성과 관련된 규칙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체계 및 말에 포함된 사회적 함축성 이해하기에 대한 숙달이 요구됨 *상대방 연령과 지위를 고려한 언어사용 *상대방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반복사용 *의사소통 시 순서를 지켜 교대하여 말하기 *상황에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말에 포함된 사회적 함축성 이해하기 ‘불이야’라는 말에는 ‘빨리 피하세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언어의 기능

언어의 기능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개인의 필요와 욕구와 의도를 표현하는 지시적·도구적 기능
- 생각을 명료화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통제적 기능
- 인지적 성장을 위한 발견 및 정보와 관련된 발견적·정보적 기능
-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적 기능
- 상상에 의해 극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짓는 등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상상적 기능
-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기능

언어관련 문제행동의 이해

구분	내용
문제행동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발달연령대에서 대부분의 또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언어관련 행동들이 학습 및 사회적 관계형성과 유지에 방해가 될 만큼 지나치게 늦거나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오랜 지속성을 보이는 경우
언어관련 문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이 정상범주에 속함 • 청력에 이상이 없음 • 간질, 뇌성마비, 뇌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관련 약물 복용 경험이 없음 •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이상이 없음

언어관련 문제행동을 보이는 영아의 또래와 다른 언어적 특성

구분	내용
말소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 습득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늦게 나타남 • 오류형태의 음운사용이 또래에 비해 잦고 지속적으로 나타남
의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낱말의 시작은 통상 1세경에 나타나는데 비해 2세경까지 지연되는 현상이 있음 • 낱말 습득이 늦어지면서 이해 및 표현 어휘 수가 저조함 • 조작 가능한 사물에 해당하는 낱말(명사)에 비해 동작과정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동사)의 습득과 사용이 제한적임 • 낱말 간 연합능력이 지체되면서 어휘사용 시 과잉확대 또는 과잉축소 현상이 지속됨 • 낱말 찾기의 어려움으로 언어사용에서 머뭇거림이나 모호한 표현이 나타남 • 가상적, 은유적 낱말 사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함 • 낱말의 의미관계 표현이 제한적임
형식관련 (형태소, 구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조사, 존칭어미, 시제, 부정어미 등 형태소에 대한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음 • 형태소 사용량이 적음 • 형태소 중 동상 및 과거형 형태소에 대한 어려움이 큼 • 형태소 오류에 대한 인식이 없음

구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구성 시 낱말의 순서(어순)가 부적절함 • 최소의 낱말로만 문장을 만드는 경향으로 인해 문장의 길이가 짧음 • 문장 구성 및 접속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수동문장, 실현 불가능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어순전략이 생략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낱말 조합능력은 통상 18개월 전후로 나타나는데 반해 37개월경까지 늦어지는 현상이 보임
의사소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와의 상호작용 참여가 저조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적음 • 대화 시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저조함 • 대화 시 상대방이 요구한 명료화에 대한 수정 능력이 저조함 • 대화 시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이 저조함

언어관련 문제행동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

- 언어행동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아시기에는 4개의 범주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느 한 범주에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범주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언어는 영아들이 또래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는 만큼 언어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또래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성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언어는 학습의 수단이 되는 만큼 언어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학습의 부진을 초래하거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언어발달영역 교사 지도 방안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기

영아 시기는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개인차가 큰 시기인 만큼 교사는 지속적으로 세밀히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되 개인차를 고려하여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음

문제행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신중한 판단

- 대개의 경우 어휘는 언어적 의미에서의 문제를 어순, 조사, 시제는 언어형식에서의 문제,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어휘나 문장의 표현능력은 언어 사용에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방치하여 고착되거나 장애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일과 및 정기적인 계획안에서 또래들의 수준과 표준발달비교 등을 토대로 영아들의 언어 행동을 민감하게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언어적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환경 조성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준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행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아들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언어적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용적인 사회적 환경조성

- 언어관련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가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교사는 물론 학급 또래들의 이해를 구하여 수용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자신의 현재의 언어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고 언어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언어활동에 대한 흥미 고취 및 동기 부여

언어활동은 영아의 발달적 수준과 흥미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활동 참여와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여 활동참여에 대한 즐거움과 함께 학습의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함

자연스러운 상황으로의 접근 및 올바른 모델링

교사가 영아의 언어적 표현을 단절하면서 개입을 하거나 수정에 대한 지시적 요구를 할 경우 좌절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모델링이 필요함

점진적 접근을 통한 성취감 고취 및 자신감 향상

언어적 문제를 가진 영아들이 관련 문제행동을 극복하기 위해 영아의 현재 수준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

가정과의 긴밀한 연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기관과 가정에서의 일관성 있는 지도를 이해 가정과 긴밀히 연계하고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상호 협조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전문적 진단 및 치료 권유

신체기관 및 신경문제로 의학적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거나 언어관련 전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기관에서의 진단과 치료를 권하여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언어발달영역 문제행동 지도의 실제

1. 또래에 비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분명하지 못한 발음으로 상대가 영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의 명료도가 현저히 떨어져 알아듣기 힘들게 발음하는 경우

영아 : 땀미~ 어~ 어~
 교사 : 응~ 뭐? 왜?
 영아 : (가슴을 치며) 떠~ 떠~
 교사 : 왜 친구가 때렸어?
 영아 : (고개를 흔들)
 교사 : 그럼 아파?(영아의 요구: “컵 주세요”였음)

가. 원인 분석

1) 영아가 정확한 발음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경우

2) 언어발달 초기 양질의 언어자극이 부족한 경우

- 양육자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 양육자의 건강 문제(특히 산후 우울증), 잦은 양육자 교체 등으로 인해 영아기 언어발달 초기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경우

3) 영아가 언어적인 표현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 영아의 몸짓이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욕구 표현 시에도 양육자는 언어적 상호작용 없이 영아의 욕구를 미리 충족시켜줄 경우 영아는 더 이상 언어적 표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도 방법

1) 영아의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며 격려하기

- 영아의 웅얼이나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그 소리를 모방하여 소리 내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므로 영아의 말소리 듣기와 말소리 내기 행동 촉진하기

“(영아가 자동차를 가리키며 웅얼이 할 경우) 아~ 자동차!, 자동차네. OO가 좋아하는 자동차구나.”

- 영아가 발음한 것을 정확하게 발음해주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기

2) 말하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환경 구성하기

- 영아가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 내고 스스로 자기 소리를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예) 안전 벽거울이 있는 공간에서 영아가 자신의 입모양을 보면서 즐겁게 말소리를 내볼 수 있도록 함
- 예)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리가 나는 놀잇감을 제공하여 놀잇감에서 나는 소리를 탐색하고 모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성기관을 사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함

3) 명확한 말소리에 대한 모델 보이기

- 교사의 입 모양을 흉내 낼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해주기
- 말소리에 리듬감을 주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예) 간단한 단어에 리듬감을 살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크게, 작게 소리내어 보는 놀이를 함
- 발음을 명확히 들려주기 위해 강조된 억양과 높은 톤으로 말해주기
예) 영아에게 말할 때 약간은 강조된 억양과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은 영아들에게 바른 발음을 익히고 동시에 말하기를 시도(한글판 독음이 될, 소리는) “우~리~같~이~가~요.”

다. 유의사항

1) 영아에게 말소리 반복적으로 강요하지 않기

- 영아가 보이는 말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하여 들려주되 영아에게는 반복할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함

2) 바른 발음으로 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동기 부여하기

- 영아들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음으로 발화를 하더라도 상대의 미소 또는 호의에 따라 영아의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므로 영아의 바른 말하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동기 부여 전략이 필요함

3) 청력 손실이나 조음장애 등 신체구조상의 문제 여부 관찰하기

-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청력손실 등의 원인으로 바른 조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또래와 달리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성인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교사 : OO야~ OO야~ 이리 오세요~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교사 : OO야~ 선생님한테 와봐~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교사 : 선생님이 OO한테 갈까?
 영아 : (가만히 앉아있음)

가. 원인 분석

1) 지시적·통제적·비일관적 양육태도

-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지시적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 (명령, 위협, 체벌, 언어적 협박 등의 사용) “빨리 치워.,” “TV꺼버린다.”
- 양육자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로 인해 영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보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2) 영아의 욕구가 좌절되고 무시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

- 자신이 한 의사표현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도 의사표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
- 영아의 관심과 흥미가 무시된 경우
예)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의 흥미를 무시한 채 다른 놀이를 제안하고 강요할 경우 흥미가 없어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

3) 기질적 요인

- 느린 기질을 가진 영아의 경우
예) 새로운 자극에 대해 반응성이 낮으며, 반복적인 노출 후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특징으로 활동수준과 기분 표현의 강도가 낮아 상대방의 말소리에 반응하지 않음

나. 지도 방법

1)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성인과의 상호작용 시 말소리 또는 몸짓으로 보인 반응이 미약하더라도 반응을 보였을 경우, 가벼운 스킨십 등 긍정적으로 영아의 반응을 격려해주기
- 영아의 행동이나 말이 틀렸거나 교사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영아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반응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기

“책상 두드리지 마라”고 말하는 대신 “책상을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네? 북을 두드려도 소리가 난단다, 여기 있는 북을 두드려볼까?”

2)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영아는 성인의 시선 이동을 따라가며 반응하기 어려우므로, 성인이 영아의 흥미 대상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영아가 관심 가지는 것을 관찰하며 영아의 관심에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
- 영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소리나 몸짓, 눈짓 등의 신호를 하면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영아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영아의 눈높이에서 언어적으로 반응 보이기

(영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 “OO야, 창문을 두드리니까 똑똑 소리가 나네.”

- 영아나 교사, 부모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들어보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영아가 듣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3) 영아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 영아가 사물을 가리키거나 물건에 시선을 보낼 때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보고있는 것에 대해 영아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 영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지, 또 무슨 놀잇감을 갖고 놀지를 선택하게 하여 스스로 통제감을 느끼고 선호하는 것을 표현해보도록 하기

“OO는 지금 봉봉카 말고 시소를 타고 싶었구나. OO가 타고 싶은 시소 타볼까?”

- 말(몸짓)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제공하기
예) 손가락이 없이 아이스크림 제공하기, 신발 한 짝만 놓아두기
- 느린 기질 영아의 경우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적응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함

4) 사람의 말소리, 표정, 몸짓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기

- 눈 마주치며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경험하기
예) 까꿍놀이, 노래가사에 이름 넣어 부르기, 소리내어 게임하기 등

다. 유의사항

1) 영아와 함께 마주하며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연계활동 소개하기

- 어린이집에서 했던 놀이가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영아가 흥미로워했던 놀이에 대해 안내하기
-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부모의 반응 및 태도 안내하기(기다려주기, 지원하기, 다그치지 않기, 칭찬하기 등)

2) 영아에게 눈 맞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 영아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영아에게 억지로 눈 맞춤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말을 시키거나 따라 해보라고 지원하는 것이 과해지면 영아는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시만을 잘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이 반복되게 됨

3) 긴 문장이나 짧은 문장 여러 개 이어 사용하지 않기

- 영아들의 주의집중 능력의 한계 고려하기
예) 영아들의 짧은 주의집중 능력을 고려하여 한 번에 긴 문장 또는 짧은 문장이라도 이어서 사용하지 않기

4)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기

- 말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능력으로 청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잘 듣지 못하여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2-1. 또래에 비해 질문 또는 지시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질문이나 지시에 대한 이해능력이 부족하거나 나타내는 반응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교사 : 무슨 색으로 색칠해볼까?

영아 : 머리

영아 : 내꺼야!

교사 : 그래도 친구도 놀고 싶어 하니까 함께 가지고 놀까?

영아 : 왜요?

교사 : 여기에 있는 놀잇감은 혼자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영아 : 왜요?

교사 : 음~ 이건 OO이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있는 놀잇감이야.

영아 : 왜요?

가. 원인 분석

1) 미성숙한 언어발달로 의미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행동과 언어를 연결하기 또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듣고 해석하는 능력발달이 원만하지 않아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듣기(listening)’는 소리를 감지하고(hearing), 주의를 기울이기, 식별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능동적인 사고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정신 과정이므로 인지와 언어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2) 부주의한 듣기 태도 및 반응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메시지에 집중하려는 욕구와 노력이 부족하여 귀담아 듣지 않고 “왜요?”와 같은 의미 없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3) 특정 언어에 대한 흥미

- 현재 영아가 관심 있는 단어나 문장, 또는 대화법에 대한 일시적인 흥미로 특정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왜요?”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나. 지도 방법

1) 다양한 수준의 듣기 기회 제공하기

- 다양한 소리나 음악, 동시, 이야기(동화) 등을 자주 들려주어 영아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고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기

- 수동적 듣기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르기 등 영아가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임과 같은 활동하기

예) 교사가 말하는 음의 고저와 소리의 강도를 인식하도록 하기

‘출발’ 또는 ‘시작’ 소리 듣고 달리기

비행기처럼 날아보는 신체표현을 하면서 말소리의 억양, 크기, 속도에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높게/낮게, 빠르게/천천히 등의 지시어 제시하기

2) 경청하기의 모델 보이기

- 영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사는 영아와 눈 맞춤을 한 상태에서 영아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언어, 비언어적 사인을 보여주기

예) 고개 끄덕이기, 미소 지어주기

“아~”, “응~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3) 질문 또는 지시에 알맞은 반응(대답) 보여주기

- 교사가 하게 될 질문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고 질문하기

사과를 먹으며 “와~정말 달콤하다. OO이도 사과 먹어볼래? 어떤 맛이 나?”

- 영아의 발달수준에 따라 영아의 반응에 대해 역으로 질문해보며 생각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지속적으로 “왜요?”라는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영아에게 “왜일까? OO이 생각엔 왜 그런 것 같니?”라고 물어보기

4) 영아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행동과 언어를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영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영아가 보이는 행동을 교사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영아가 귀가 시 또래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OO이가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해주는구나.”

- 실제 영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가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예) 손인형, 막대인형 등을 이용해 상황에 따른 질문하고 대답하기

5) 그림책 활용하기

- 일상적이면서도 간단한 대화가 이어지는 그림책을 자주 읽어주고, 익숙해지면 그림책 속 대화의 일부분을 교사와 영아가 번갈아가며 말해보면서 적절한 반응 지원해보기

(그림책을 보며) “곰돌이가 토끼에게 인사했어요. 토끼야 안녕? 토끼는 곰돌이에게 뭐라고 말해줬을까?”

6)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기

- 교사가 영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영아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한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교사를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마련하기

예) 주변 환경의 자극이 최소화되도록 조용한 영역에서 이야기 나누기

또래의 놀이 상황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이야기 나누기

다. 유의사항

1) 부모-자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정 연계활동 소개하기

- 가정에서도 부모가 영아와 의사소통할 때 바르게 듣는 태도를 보여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 가정연계활동으로 듣고 바르게 반응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듣기 자료와 활동(게임, 신체표현 등)을 소개하기

2) 어린 월령의 영아일수록 친숙한 낱말이나 짧은 문장을 들려주기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몸짓, 억양 등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들음으로써 영아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3)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기

- 교사의 질문 또는 지시에 영아가 현재 흥미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기

-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문장이 완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아가 한 말을 바른 단어와 문장으로 재언해주거나 피드백을 주기

3. 또래와 달리 울음 또는 몸짓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주로 하는 경우

소리를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울음이나 손짓, 표정, 몸짓으로 나타내는 경우

(식판에 놓인 음식을 보며 갑자기 울음을 보임)

영아 : 흑... 흑...

교사 : OO야, 왜 그래?

영아 : (음식을 손으로 가리키며) 흑... 흑...

교사 : (영아가 가리킨 음식을 보며) 이거 먹기 싫어서 우는 거야?

영아 : (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먹거림)

(만2세 남아)

-책을 들고 와서 교사에게 내민다.(읽어달라는 표현)

-하고 싶은(갖고 싶은) 놀잇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가. 원인 분석

1) 인지능력의 부족

인지발달이 또래보다 늦을 경우

예) 맑은 소리를 상징한다는 인지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인지발달이 다소 늦을 경우 상징의 이해가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언어표현의 어려움을 지니게 됨

2) 발달초기의 부적절한 언어 환경의 영향

구분	내용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	영아가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도 전에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쯤 배가 고프겠지.” 간식을 먹이고 “간식을 먹었으니 이젠 목이 마르겠네.”라고 물을 먹임
과잉보호	과잉보호는 영아의 말할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아는 애써 의사표현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됨
영아의 울음이나 응얼이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울음의 원인을 찾아 즉시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응얼이에 반응적이지 않을 경우 영아의 의사소통에 비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영아가 빈약한 언어 자극	· 언어 자극은 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데 자극이 부족하거나 인지를 발달시키고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언어를 발달시키기 어려움 · 적절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없거나 또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제재를 당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1) 울음의 정확한 의미 파악하기

- 영아의 요구 및 욕구 이해하고 수용하기

예) 교사는 영아들이 채우고자 또는 이루고자 하는 욕구의 실제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함

“많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아팠었구나”, “많이 불편했겠다” 등 영아의 마음 이해하고 반응해주기

- 존재에 대한 인정하기

예) 영아는 종종 울음을 통해 사랑해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 등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함. “괜찮아”, “그래 선생님이 도와줄게”와 더불어 머리 쓰다듬기, 안아주기, 귓속말 해주기, 토닥여주기와 같은 스킨십 해주기

- 영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감정 상태와 상황들을 구체적 묘사하듯 말해주기

“OO이 속상한 게 있니?”, “뭐가 힘들었어?”, “반찬 먹기가 힘들었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까?”

- 울음의 차이 이해하기

예) 만1세 이후의 울음은 영아의 감정이 좀 더 복잡해지는 시기이므로 울음의 이유 또한 거절에 대한 화남의 표현, 하기 싫다는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함

2) 언어 자극을 제공하고 표현을 격려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제공하기

- 단어를 익히고 발화해 볼 수 있는 언어적 기회 제공하기

예) 영아가 사물을 인식하고 단어로 명명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물(우유, 강아지 등) 그림책 제공하기

“OO은 놀이터에서 봤던 거네?”, “OO은 **가 좋아하는 물건이다.”

- 영아에 대한 기본적 감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예)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아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 제공하기

3)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격려하기

- 처음부터 개방형 질문과 의무적 언어표현을 요구하지 않고 영아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며 점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 울음이나 손짓, 몸짓 표현이 아닌 언어적인 표현의 필요성을 영아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성인과의 1:1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기

다. 유의사항

1) 부모의 자세 및 본보기 중요성 지속적으로 안내하기

- 적절한 억양과 분명한 발음, 적당한 말의 속도에 유념하여 대화하기
-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제안하기보다 한 번에 하나 지시하기 등으로 조절하기
- 영아의 언어 표현이 서툴고 다시 울음으로 표현되어도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기
- 영아의 말을 중간에서 끊거나 미리 문장을 대신 말해주어 영아가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기

2) 울음에 대한 야단, 틀린 의사표현에 대한 지적 지양하기

- 대부분의 교사나 부모는 영아의 울음은 빨리 그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영아가 우는 이유는 다양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나 감정표현이 서툰 영아 울음을 소홀히 하거나 야단쳐서는 안 됨

3) 틀린 의사표현에 대한 지적 지양하기

- 지적보다는 영아의 말을 바른 말로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말해주면서 미소 지어주기, 끄덕여주기, 스킨십 등 비언어적 반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4. 또래와 달리 징징거리거나 소리지르는 말투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

언어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주로 울음으로 징징거리며 표현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빈번히 나타내는 경우

(또래가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칭얼거림)

영아 : (우는 소리로) 아~니~야. 아~니~야.

교사 : 우는 소리로 말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울지 말고 이야기 해줄래?

영아 : (계속 징징거리며) 그니까.... 내~뀐데~ 자꾸. 만지니까.... 아

(교실을 돌아다니는 또래를 보며 소리를 지름)

영아 : (발을 동동 구르며) 악~ 악~

교사 : OO야, 무슨 일 있니?

영아 : (교사의 대응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악~

가. 원인분석(이론적 근거 포함)

1) 언어능력 부족으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 영아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예)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리지르기로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함

2) 욕구 좌절

- 영아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예) 영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거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음

3) 건강상태와 사회성발달 미숙으로 인한 스트레스

- 배가 고프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등 영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친구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징징거리고 소리지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영아 스스로 잘하고 싶으나 영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4) 주변 성인의 양육태도나 행동의 영향

- 민감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영아의 요구사항이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징징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
-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영향으로 강화된 경우
- 예) 부모가 영아의 징징거림에 일관성 없이 대하면서 한 번 응해주게 되면 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
- 부모나 그 외 성인들이 주변에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

나. 지도 방법

1) 교사의 민감성 키우기

-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불편해서 징징거리는 것일 수 있으며 영아의 상태를 살펴보고 이해하고 도와주기
- 즉시 반응해 주지 않아 영아의 징징거림이 길어지지 않도록 영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적절한 반응 즉시 보여주기

2) 부정적인 인식 바꾸기

- 영아들의 언어표현의 미숙으로 이유 있는 요구를 떼쓰는 행동을 잘못 이해하여 울보 떼쟁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도록 함

3)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시키기

-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 안 되는 것의 기준은 일관성 있게 지키기
- 영아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영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지금은 OO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있네. 여기 똑같은 놀잇감을 놀이할까? 아니면 OO에게 바꿔달라고 해볼까?”라고 말하며 다른 방안을 제시함

4) 영아가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도록 하기

- 영아가 교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안정감을 느끼면 말을 잘 듣고 따르며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긍정적인 표현과 행동을 나타냄

- 부정적인 표현 지양하고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

“또 징징대네, 똑. 소리지르지마. 안돼.”라고 비난하고 명령하기보다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났구나, 선생님도 그럴 때가 있어.”

5) 주변 환경 바꾸기

놀이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어떤 상황에서 영아가 징징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지 관찰하여 상황에 따른 영아의 반응을 예측하고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하는 환경을 사전에 통제하기

다. 유의 사항

대다수의 영아들이 징징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징징거리는 행동이 지속되면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교사나 부모의 일관성 없거나 반응적이지 않은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5. 또래에 비해 대화 시 상대방을 응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

말하는 상대를 응시하지 않거나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
교사 : (간식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OO에게) OO아, 앉아서 간식 먹자
OO : (교사의 말을 듣지 않음)
교사 : OO아, 간식 먹을까?
OO : (교사의 쳐다보지 않음)

가. 원인분석(이론적 근거 포함)

언어능력 부족으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 영아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예) 어떤 주장을 하다가도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리지르기로 답답함을 해소하기도 함

구분	내용
자기중심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타인과의 눈 맞춤을 피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

언어 이해 및 표현의 미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발달이 미숙한 경우 예)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언어가 발달되지 않으면 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려 할 수 있음 영아가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
주의력 부족이나 고집이 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 집중시간도 짧고 주의력이 산만하여 상황에 대한 집중이 어려우므로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 경쟁적인 성향을 타고난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접고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을 자신이 진다고 인식하는 경우 예)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하게 떼를 쓰거나 화를 내며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함

나. 지도 방법

1) 영아의 요구에 경청하고 영아의 바람직한 반응 격려하기

교사가 영아의 요구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델을 보이고 영아가 교사의 말에 반응을 하거나 쳐다볼 때 칭찬하기

2)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하는 시기에 자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 준 후, 왜 해야 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예) 영아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야기하기

“~하면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면 선생님 기분이 ~해.” 등

- 영아의 요구와 바람을 먼저 인정해 주기
예) 시간을 갖고 영아의 감정을 수용함으로써 영아의 요구를 먼저 배려하고 인정하여 요구는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영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 영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기

3) 이야기나 상황에 집중하는 경험 제공하기

- 주의력이 산만한 경우 집중시간이 짧고 상황에 대한 집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집중하여 들어보고 주변 상황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총괄 정혜원(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실무·편집 홍유림(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정책팀장)
옥향희(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보육컨설턴트)

제작지원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13).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Eva essa(2010).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인쇄 2023년 12월

발행 2023년 12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 031-876-5767

인쇄 및 디자인 (주)현정커뮤니케이션 ☎ 02-2272-7065